B7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복막염시 복강내 헤파린 투여 유무가 Peritoneal Protein Selectivity Index에 미치는 효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신장질환연구회

이승원 · 이승우 · 박근호 · 송준호 · 김문재

복막투석 환자에서 복막염은 복막섬유화에 중요한 요인이다. 조직형태학적인 연구결과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에서 peritoneal protein selectivity index (PPSI)이 낮을수록 복막섬유화가 심하여, PPSI는 복막섬유화의 표지자로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복막투과도에 대한 헤파린의 복강내 주입의 유용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복막염 환자에서 PPSI에 대한 복강내 헤파린 주입의 효과를 조사하고자 2004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본원 복막외래환자 중 복막염으로 입원 혹은 외래 치료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치료실패나 혈액투석으로 전환, 자동복막투석환자, 잦은 재발 환자, 이전 초여과 실패 환자등은 제외하였다. 헤파린을 사용하는 군과 사용하지 않는 군은 복막염 순서에 따라 선정되었고 두 군 모두 초기 치료로서 cefamezine과 isepamycin을 사용하였으며 헤파린을 복강내 주입하는 군은 추가로 매 투석액마다 1,000 U/L씩 복막액 WBC의 수가 50/mm^3 이하가 될 때까지 주입하였다. 그리고 Modified fast PET을 치료 2일째와 30일째에 시행하여 4hr D/P Cr과 PPSI (PPSI=IgG clearance/transferring clearance)를 구하였다.

총 37명의 환자 중 14명의 환자가 제외되고 연구 프로토콜을 완성한 헤파린 사용군 13명과 사용하지 않는 군 10명을 분석한 결과 양 군간의 기본 특성의 차이는 없었고 치료 2일째 시행한 PET에서도 총여과량, D/P Cr, PPSI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30일째 시행한 PET에서는 총여과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D/P Cr (p=0.026) 과 PPSI (p=0.03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치료 2일째와 30일째의 D/P Cr과 PPSI의 차를 분석하였을 때 PPS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다 (p=0.041). 이상의 결과로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는 군은 PPSI가 변화가 없는 반면 헤파린으로 치료한 군에서는 치료 2일째와 비교해 치료 30일째에서 PPSI가 의미있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복막염 환자에서 헤파린 사용이 복막섬유화를 예방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